

아시아리뷰  
제14권 제1호(통권 30호), 2024

자유 주제

[www.kci.go.kr](http://www.kci.go.kr)



# 미중 전략 기술경쟁 시기 미국의 견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 이론과 사례: 신고전현실주의의 과다균형과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이재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본 논문은 미중 전략 기술경쟁 시기 미국의 견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과다균형(overbalancing)으로 변화하는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해 다루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고전현실주의 이론 관점에서 중국 시진핑의 대외 위협에 대한 인식과 이와 상호작용하는 전략적 문화가 중국의 과다균형 대응을 초래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것이다. 시진핑의 인식과 상호작용하는 전략적 문화로서 중국의 총체적 안보관과 경제안보 정책은 이에 대한 국내 반대 의견과 엘리트의 파편화보다 이를 둘러싼 정치 엘리트와 사회의 응집력이 오히려 강화되면서 미국에 대한 과다균형의 대응을 유발했다. 시진핑 시대 엘리트와 사회 응집력이 증가한 이유는 시진핑의 일인 지배가 강화되고 경제안보 정책 집행을 위한 인사 통제가 제도화되며 시진핑이 소비바이코트를 통해 민족주의와 대중주의를 효과적으로 동원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국의 전략적 문화로 인한 과다균형이 미중 전략경쟁을 더욱 격화시킨다는 사실은 미중 전략 기술경쟁 시기 미국의 견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설명하는 신고전현실주의 이론이 적실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 준다.

**주제어** 미중 전략적 경쟁, 미중 기술경쟁, 신고전현실주의, 과다균형, 경제안보, 공급망 재편

## I. 서론

세계 질서 속에서 지정학적 경쟁의 격화는 새로운 글로벌 문제 해결에 필요한 국제협력을 방해했고, 이렇게 악화되는 국제 정세는 지정학적 긴장을 더욱 심화시켰다. 코로나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협조를 중국이 거부하면서 이후에 일어날 전염병 확산 사태 예방은 차질을 빚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망의 교란은 국가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고려보다 에너지 안보에 더욱 열중하게 했다. 핵 비확산 체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즉 우크라이나 전쟁, 이라크와 리비아, 이란 등 사례를 보면서 다른 국가들도 핵무기 개발을 선뜻 포기하기 어렵게 만들었다(Haass, 2022).

이처럼 미중 전략적 경쟁은 이제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더 복잡하고 해결

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장기화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 펼쳐지는 첨단기술의 주도권 경쟁은 미중 전략적 경쟁의 핵심 분야다.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 혁명이 도래하고, 각 산업 섹터에서 고부가 가치와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무한 경쟁이 펼쳐지면서, 기존에 세계 경제와 첨단기술의 고부가 가치를 장악하고 있던 미국은 중국의 도전에 직면하여 전방위적 압박과 제재를 통해 중국의 첨단기술 부상을 억제하고 있다(이재영, 2020).

미국의 이러한 전방위적이고 공세적인 대중 견제와 강압 속에서 중국 정부는 자력 자강과 과학기술 국산화, 쌍순환(双循环) 정책,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다루지 않는 시장접근 분야에 대한 대미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서 주도적 역할을 추진하고 있다. 브릭스(BRICS)와 상하이협력기구(SCO)를 통해 중국주도의 홍색 공급망과 다자협력체제를 확대하고, 일대일로로의 대전략을 통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이러한 대응 가운데 경제 정책에서 경제성장과 안보 사이의 균형을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가 중요하다(Thomas, 2023). 왜냐하면, 지나치게 국가안보를 중시하다 보면 경제의 안보화를 통해 경제 정책에 대한 당-국가 개입이 강화되고, 경제의 효율성과 성장은 어느 정도 희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 질문은 미중 전략 기술경쟁 시대 미국의 견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변화하는 요인은 무엇인가이다. 이에 관해 본 연구는 신고전현실주의 이론 관점에서 중국 시진핑의 전략적 문화와 리더 이미지가 중국의 과다균형 대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증명할 것이다. 시진핑의 전략적 문화의 부산물로서 중국의 경제안보 정책은 이를 둘러싼 통치 엘리트와 사회의 응집력 강화를 통해 미국에 대한 과다균형(overbalancing) 대응을 초래했다. 시진핑 시대 엘리트 응집력이 증가한 이유는 시진핑의 일인 지배의 리더 이미지가 강화되고 경제안보 정책 집행을 위한 인사 통제가 제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국의 대응을 과다균형으로 정의하는 것은 중국이 경제적으로 최적의 정책이 아닌(suboptimal) 전략과 행위를 선택한 것을 강조한다(Mallett and Juneau, 2023: 7). 즉 중국은 경제 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국가안보의 과잉을 보여 주고 있고(Thomas, 2023; Drinhausen·Legarda, 2022/9/15; Blanchette, 2022/9/1),

그 결과 중국 경제에 각종 비효율성이 초래되면서 중국 경제가 이미 정점을 찍었다(Peak China)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이재영, 2023).

이처럼 중국의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대응이 오히려 중국 경제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지만, 안보 차원에서 대응 자체의 효과성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구조 현실주의 논리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즉 구조 현실주의에 따르면 미국의 노골적인 대중 압박과 강압 정책에 대한 시진핑 정부의 대응 강화는 합리적일 수 있으나, 그러한 중국의 대응이 미국에 대해 균형을 취하지 않거나 그러한 균형이 효과적이지 않은 과소 균형에서 과다균형으로 변하는 것은 ‘신고전현실주의’의 국내 정치적 요인설명이 적실할 수 있다. 즉 시진핑의 전략 문화와 경제안보 정책, 통치 엘리트와 사회 응집력 강화는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균형의 과다균형을 형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 부작용인 체제의 경직성과 시장경제의 후퇴로 인해 경제적 비효율성도 초래한다는 것이다.

II장에서는 미중 간 이러한 전략적 기술경쟁을 둘러싼 중국의 대응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지경학과 디지털 패권경쟁, 신고전현실주의 관점에서 분석할 것이다. III장에서는 신고전현실주의 관점에서 중국 시진핑의 가장 중요한 전략 문화인 총체적 안보관과 경제안보 정책을 분석하고, 이러한 정책이 왜 미중 경쟁을 다시 격화시키면서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하는 과다균형 대응의 중심에 있는지 고찰할 것이다.

## II. 미중 전략 기술경쟁 시기 중국의 대응 이론

### 1. 지경학과 디지털 패권경쟁

#### 1) 지경학과 보호무역 조치

미중 전략 기술경쟁은 지경학 경쟁의 지정학적 전환(geopolitical turn), 즉 복합 지경학의 특징이다. 세계 경제의 네트워크화와 미중 전략경쟁은 21세기 복합 지경학의 부상을 촉진한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21세기 복합 지경학의 부상에 의한 경제적 통치술의 변화는 네트워크 제재, 스마트 제재, 표적 제재 등 새로운

표 1 2009~2023년 미중의 상대국에 영향을 주는 보호무역 조치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	중국의 보호무역 조치
2009	225	111
2010	351	136
2011	211	183
2012	225	223
2013	196	232
2014	249	259
2015	192	310
2016	180	329
2017	132	281
2018	253	354
2019	189	531
2020	320	615
2021	362	497
2022	624	235
2023	168	30

출처: Global Trade Alert(2023), 2023. 10. 2. 업데이트, <https://www.globaltradealert.org/>(검색일: 2023. 12. 22.).

방식이 광범위하게 활용된다(이승주, 2021: 51-80).

지경학은 경제 도구 사용으로 국익 촉진 및 방어뿐만 아니라, 국익에 도움이 되는 지정학적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타국의 경제적 행위가 다른 국가의 지정학적 목표에 미치는 영향이다. 지경학이 부상하는 이유는 국가 전략의 지정학적이고 정치·군사적인 측면이 상호 강화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자본주의 체제는 국가가 직접 처분 가능한 더 많은 경제 자원으로 타국의 지정학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세계 시장은 국가의 지정학적 선택과 결과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Blackwill·Harris, 2016: 9).

중국은 한국의 사드 문제와 호주의 코로나바이러스 기원 조사 촉구 등 자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전략적 이슈에 대해 외교적 접근보다는 상대국이 중국의 입장을 수용하도록 경제적 보복 조치 같은 국가 전략을 활용한다(최진백, 2022:

23). 미국이 첨단 반도체 분야 디커플링을 추진하고, 대중 압박을 강화하자 중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5월 미국의 마이크론 반도체 제품에 비교적 심각한 보안 문제를 이유로 주요 정보 시설 운영자의 마이크론 제품 구매를 중지했다. 그리고 중국은 2023년 8월부터 갈륨, 게르마늄 등 미국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차세대 반도체 주요 소재에 대한 수출 통제도 단행했다.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2018년 이후 미중 상대국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무역(harmful) 조치도 급증했다. 예를 들어 표 1을 보면 중국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는 2017년 132건에서 2018년 253건으로 증가했고, 2020년과 2021년 각각 320건, 362건으로 증가했으며, 2022년 624건으로 최고조에 이르렀다. 중국도 미중 무역 전쟁 이후 미국에 영향을 주는 보호무역 조치가 급증했는데, 2017년 281건에서, 2018년 354건, 2019년 531건, 2020년 615건으로 정점에 도달했다(이재영 외, 2023: 42).

## 2) 미중 전략적 기술경쟁과 디지털 패권경쟁의 관계

중국 칭화대학교 옌쉐통 교수는 미중 경쟁을 디지털 사고가 지정학적 사고를 대체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 있고, 이러한 디지털 사고는 강대국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전략적 사고라고 주장한다. 그 때문에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대와 지금의 신냉전 시대는 다르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과거 미국과 소련의 양극, 핵무기, 이데올로기 갈등에 의한 냉전 사고는 현재 외교정책 결정에 냉전 시대와 유사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냉전 시대에는 없었던 지금의 새로운 전략적 요인은 바로 인터넷을 기초로 하는 디지털 경제 기술의 지속적인 진보이고, 디지털 경제와 네트워크 안전은 국가의 부와 안전을 형성하는 주요 요인이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틀 속에서 디지털 기술 우위가 두 강대국 전략경쟁의 핵심영역이다. 마지막으로 현시대는 냉전 사고와 디지털 사고 모두 외교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면서, 국가 간 상호작용으로 불안정한 평화 질서가 형성됐다(阎学通, 2021: 28-29).

특히 옌쉐통은 인터넷 주권과 디지털 주권 개념이 국가 간 상호의존성을 낮추고 산업 사슬을 축소하며, 전 세계 거버넌스 책임을 회피하게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디지털 사고가 불안정한 평화 질서에 미칠 영향은 갈수록 확대될

것으로 보았다(阎学通, 2021: 54-55). 이처럼 미중 관계가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의 갈등과 충돌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이유는 지금의 미중 전략적 기술경쟁이 냉전 사고와 디지털 사고가 결합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결국, 미중 전략적 기술경쟁은 기술, 안보, 권력의 복합지정학과 미중 간 디지털 패권경쟁의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즉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한 글로벌 패권경쟁’의 부상이 지금의 미중 전략적 기술경쟁의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패권경쟁은 디지털 기술경쟁, 디지털 플랫폼 경쟁, 디지털 매력경쟁으로 전개되고, 사이버 안보, 공급망 안보, 데이터 안보 등 복합지정학으로 나타나며, 첨단 방위산업과 우주 복합공간, 그리고 미래전의 진화 같은 신흥권력 경쟁의 세계정치가 부상한다(김상배, 2022).

따라서 미중 전략적 기술경쟁에 대한 디지털 사고와 디지털 패권경쟁의 분석틀은 2절에서 설명할 신고전현실주의와도 연관이 있다. 즉 중국 국내 정치에서 최고지도자의 디지털 사고와 디지털 패권경쟁에 관한 인식과 전략적 선택이 중요하고, 이러한 사고와 인식에 근거하여 시진핑이 국가-사회관계 속에서 중국 정치 엘리트의 응집력과 국가 능력을 동원하는 방식을 분석하는 것이다.

## 2. 신고전현실주의: 시진핑 시기 과다균형

### 1) 시진핑 시기 과소균형에서 과다균형으로의 전환

케네스 월츠의 신현실주의는 무정부 상태와 물질 능력 배분의 체제적 요소가 중요하지만, 신고전현실주의에서는 한 국가의 전략적 선택인 외교정책의 매개변수를 중시한다. 이러한 외교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국내 정치 요인이 반드시 포함된다(Friedberg, 1988: 8; Williams, 1993; Christensen, 1996; Schweller, 2006). 중국의 외교정책 연구에서 국내 요인(domestic sources)은 중요한 독립변수로 고려된다(Lai, 2010). 그리고 국내 정치에서 국제적 힘의 배분에 대한 지도자와 정책결정자들의 인식도 중요하다(Zakaria, 1999: 42). 이러한 인식과 함께 국가의 선호와 대전략 역시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친다(Hall, 2014; Hall, 2016). 특히 중요한 것은 (사회)엘리트의 응집력과 그 결과로서 과소균형(underbalancing)과 과다균형(overbalancing)이다(Schweller, 2004: 159-201). 따라서 엘리트 응집력과 외교정책 목표 실현을 위한 국

가 자원 동원 능력인 국가 능력은 외부 위협에 반응하는 핵심 요소다(Schweller, 2006; Zakaria, 1999).

이러한 신고전현실주의에 따르면 미중 전략적 경쟁 시기 미국의 견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무정부 상태와 물질적 배분에 의한 것이지만, 이러한 대응의 변화를 설명할 때 매개변수로서 외교정책도 중요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 정치를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중국 최고지도자의 국제질서에서 힘의 배분에 대한 인식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부상이 교차하고 있다는 판단이고, 중국의 선호는 도광양희(韬光养晦)에서 분발유위(奮發有為)로 공세적인 외교와 전랑(战狼·늑대전사) 외교를 통한 중국의 핵심이익을 해외에서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다(Ghiselli, 2021).<sup>1</sup>

후진타오 시기와 달리 시진핑 시기 중국은 집단지도체제가 아닌 일인 지배라고 불릴 정도로 시진핑 개인 권력과 공산당의 일당독재를 강화했고, 이는 헌법에서 국가주석 3연임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후계자를 선택하지 않은 후 2022년 20차 당대회 때 3연임을 확실시한 데서 알 수 있다. 시진핑의 엘리트 응집력과 국가 능력 강화는 반부패 운동, 국유기업 개혁, 민영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주요 외교 안보와 정치 정책에서 중앙 집권 강화를 통해 잘 드러난다. 이러한 중국의 국가 능력과 엘리트 응집력 강화는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과소 균형’에서 ‘과다균형’ 대응으로 전환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고 이로 인해 미중 간 갈등과 충돌이 재차 격화되는 악순환을 불러왔다.

중국의 과다균형은 수잔 셔크가 제시한 중국의 ‘과도한 팽창(overreach)’과도 연관이 깊다. 셔크는 중국의 팽창 시작 시기를 2006년 후진타오 집권기로 보고 있고, 영역은 경제, 사회통제, 외교정책으로 제시했다. 우선 경제는 2006년 중국 당국이 국가의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여 국유 섹터를 중심으로 중국을 첨단기술

<sup>1</sup> 이러한 대전략의 변화에 대해 러시 도시에 따르면 중국의 대외 전략 목표가 동아시아 패권을 넘어서 세계 패권으로 확장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부상하는 도전 세력인 중국이 미국이라는 기존 패권국을 대체하기 위해 세 가지 통제 양식이 필요하다. 즉 강압 능력, 합의 유인, 정당성 확보가 중요하다. 따라서 부상하는 중국이 패권국 미국을 평화적으로 대체하는 행위는 순서대로 두 가지 포괄적인 전략이 제시된다. 첫째, 미국의 이러한 세 가지 통제 형태를 ‘약화시킨(blunting)’ 후, 둘째, 다른 국가에 대해 이러한 통제 양식을 ‘확립(building)’한다(Doshi,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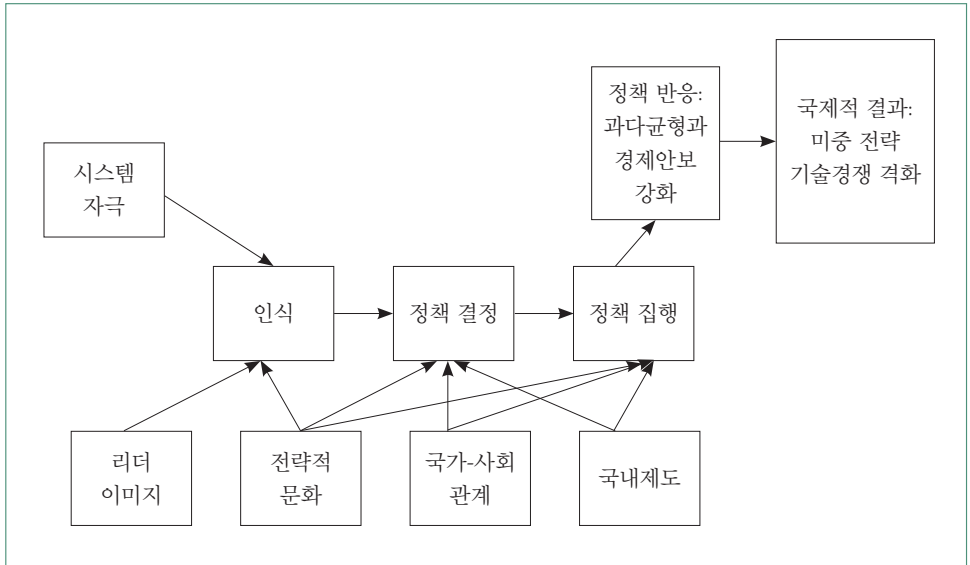
강대국으로 바꾸려 했다. 사회통제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직전부터 중국공산당이 언론, 인터넷, 사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으며, 외교정책에서도 후진타오 시기부터 세계 문제에 있어 더욱 적대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다(Shirk, 2023: 14). 하지만 후진타오와는 다르게 시진핑은 자신에게 권력을 과도하게 집중시켰고, 고위 관료들도 시진핑에 편승하면서 대외적으로 중국의 과도한 팽창이 시진핑 집권 3기에 더욱 극심해졌다(Shirk, 2023: 290). 시진핑 시기 더욱 심화된 과도한 팽창이 미국의 트럼프 정부와 바이든 정부의 대중 봉쇄 및 견제 정책과 만나면서 중국의 과다균형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트럼프와 바이든으로 이어지는 전방위적 대중국 압박과 견제에 대해 중국은 초기에는 선별적 반응이라는 효과가 떨어지는 과소 균형을 추구했다. 그중에서 중국은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외교와 제도적인 준비를 강화했다. 지재권 보호 제도 강화,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수출 통제·기술 수출 관리·사이버 안전 보호 법제화 등이다. 또한, 외교적으로는 미국 제재와 공격의 빌미가 되는 중국제조 2025와 민군 양용에 대한 대외적인 공식 언급 자제다. 그 뿐만 아니라 중국 당국은 외교 무대에서 <미중 경제무역 협상에 관한 중국의 입장(关于中美经贸磋商的中方立场)>(国务院新闻办公室, 2019/6/2) 등 공식 문서와 지도부 발언을 지속해서 발표함으로써 외부 위협에 대비하는 자주적인 공급사슬 건설, 국제 산업 사슬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 증진, 미국과의 탈동조화와 소다자주의 형성 반대를 잇달아 강조했다(이재영, 2020: 242-246).

결과적으로 III장의 사례에서 자세히 분석하겠지만, 시진핑 시기 미국의 견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이전 정부의 소극적·선별적 반응에서 벗어나, 특정 미국 기업 제재, 수출 통제 등 가용한 수단을 사전에 법제화하여 미국에 대한 경제 강압을 활용하기 시작함으로써 ‘공세적·전방위적인 맞대응(tit for tat)’으로 진화했다.

## 2) 신고전현실주의 외교정책 모델

이러한 중국의 외교정책 변화를 설명하는 신고전현실주의 모델은 네 가지 매개변수를 제시한다(Ripsman et al., 2016: 59; Kunz·Saltzman, 2012). 첫째, ‘인식’은 국제적 요인 즉 국제 시스템의 자극뿐만 아니라 ‘리더의 이미지’와 ‘전략 문화’의 영



출처: Ripsman et al.(2016: 59). 그림을 토대로 본 논문의 종속변수에 맞춰 수정.

그림 1 신고전현실주의 외교정책 모델

향을 받는다. 둘째, 정책 결정과 집행은 전략 문화, 국가-사회관계, 국내 정치 제도의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중요한 것은 위기 상황 가운데 리더의 인식 단계에 외교정책 결정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시간 제약 속에 있는 리더의 인식은 외교정책 관련 관료 조직, 사회, 국내제도와 별개로 정책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략 문화, 국가-사회관계, 국내제도는 국내 정치 과정이다(Ripsman et al., 2016: 59-61).

구체적으로 이러한 매개변수를 살펴보면 우선 리더의 이미지는 리더 개인의 성격(Byman·Pollack, 2001)과 신념(Levy, 2013) 등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진핑의 통치 스타일과 관련이 있다. 즉 시진핑은 시황제라고 불릴 정도로 모든 분야에서 강한 권력을 가지고, 모든 국가 권력과 군대 조직을 장악하며, 이데올로기와 역사 해석, 미래 비전, 도덕적 모범을 독점하여 무자비한 독재자 같은 리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Shambaugh, 2021: 336). 이러한 리더 이미지는 리더의 인식을 통해 중국의 외교정책 결정과 집행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둘째, 전략적 문화는 군대 관료와 같은 조직 문화(Legro, 1995; Kier, 2017)와 전체 사회의 신념, 세계관, 공유된 기대 사이를 구분한다(Goldstein·Keohane, 1993). 본 연구에서 전략적 문화는 콤팩의 개념인 엘리트와 대중 사이 뿌리내린 국가안보에 대한 개념으로 정의한다(Kupchan, 2010). 시진핑은 국가안보에 대한 관점을 총체적 안보관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사회화와 제도화를 통해 중국 국가의 집단적 규범으로 확립시켰고 이러한 안보관으로 국가 행위와 사회(엘리트)를 제약했다.

셋째, 국가-사회관계는 중앙의 국가 제도와 다양한 경제 사회 조직 사이 상호작용으로 정의되고, 국가 내부의 정치·사회적 응집력, 그리고 일반적 외교정책과 국가안보 목적에 대한 대중의 지지 수준으로 나타난다(Zakaria, 1999). 중국 국민들과 엘리트들은 제로코로나 정책에 대한 반대시위를 제외하고 외교정책 특히 대미 강경 정책에 반대하는 여론이나 시위는 찾아보기 어려웠고, 오히려 그러한 외교정책을 지지했다.<sup>2</sup> 대미 외교정책에 대한 엘리트 응집력이 형성된 것이다.<sup>3</sup> 특히 외부 위협에 대해 균형을 취하지 않거나 균형이 효과적이지 않은 과소균형이 일어나는 것은 리더의 선호가 국제적 문제보다 국내 문제에서 더 큰 영향을 받거나, 균형 행위로 인한 국내 정치적 위험 요소와 비용이 너무 크다고 평가하기 때문이다(Schweller, 2006: 11-13).

따라서 시진핑 시기 미국의 견제 같은 외부 위협에 대한 과소균형에서 과다균형으로 이동한 것은 미국의 대중 봉쇄와 압박 위협이 국내 문제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정치·사회 엘리트의 합의와 시진핑의 대미 강경 정책에 대한 지

<sup>2</sup> 2020년 환구시보의 미중관계 온라인설문조사에서 14만 명의 중국 네티즌 가운데 96%가 미국의 대중 봉쇄와 공격의 목적은 중국 인민과 공산당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중국의 단결을 훼손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97%의 네티즌은 미국의 도발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반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环球时报 2020/8/11).

<sup>3</sup>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시진핑의 위로부터의 동원 가능성과 엘리트 응집력을 정밀하게 논증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중국 국민과 정치엘리트의 여론을 부추기는 시진핑의 대미 강경 발언 등이 너무 많아 이를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본 논문의 지면 한계로 인해 지양하겠다. 그리고 대외정책에 대한 중국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를 과학적으로 조사하는 설문조사 역시 중국에서 진행된 설문조사의 신빙성과 신뢰성 문제로 이를 확실한 논거로 삼기가 어려운 한계도 있다. 그 대신 다음 장에서 중국의 소비애국주의 사례에서는 중국 소비자들이 미국의 인권개입이나 대중 압박책에 대해 분명히 반감을 가지고 소비 보이콧한 증거가 있어 이를 반박하기는 어렵다.

지뿐만 아니라, 시진핑이 3연임 확정 이후 대미 균형 행위로 인한 정치적 위험과 비용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sup>4</sup>

마지막으로 중요한 매개변수는 국내 정치 제도로 국가 제도의 구조적 차이가 시스템 압력과 외부 위협에 반응하는 국가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Allison·Zelikow, 1999). 시진핑 집권 시기 반부패 운동, 이데올로기 강화, 당 중앙 집권화, 일인 지배 강화 등 정책은 정치 제도화와는 상관없는 레닌주의의 강화로 보기도 한다(Fewsmith, 2021). 이러한 국내 정치 제도는 시진핑의 외교정책에서 민족주의와 대중주의에 호소하는 메시지와도 관련이 있다(Fewsmith, 2021: 181). 시진핑 시기 정치 제도를 ‘권력 집중형 권위주의’로 제시하는 연구도 있다. 이러한 권위주의는 엘리트 정치에서 총서기로의 권력 집중, 당정관계에서 공산당으로의 권력 집중, 국가-사회관계에서 국가로의 권력 집중, 중앙-지방 관계에서 중앙으로의 권력 집중이 나타난다(조영남, 2023). 권력 집중형 권위주의는 대외적으로 ‘강경한 중국(assertive China)’과 관련이 있다(조영남, 2023: 44). 중국 정치 제도에서 레닌주의 강화와 권력 집중 현상은 대외적으로 미국의 견제와 위협에 대한 과다균형과 경제안보 정책과 관련이 있다.

네 가지 독립변수들 가운데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요인은 전략적 문화와 리더의 이미지다. 이 두 변수가 중요한 이유는 국제 시스템의 명확성 정도와 전략적 환경의 특성 때문이다. 국제 시스템의 명확성은 이러한 시스템이 위협과 기회의 특성, 시기, 이에 대한 최적 정책 선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이고, 전략적 환경은 한 국가가 직면한 위협과 기회의 규모와 임박성이다. 낮은 명확성과 제한적인 전략적 환경에서 위협의 정도가 크거나 줄어드는 기회의 중요성 때문에 사회 행위자들은 국가 이익에서 한쪽으로 밀려나고 국가 지도자는 전략적 차원에서 사회 요구를 무시한다(Ripsman, 2016: 94-95).

<sup>4</sup> 시진핑 정권의 통제강화가 과연 엘리트와 사회의 아무런 동의 없이 이루어졌는지 증명하기 어렵다. 만약 엘리트와 사회의 동의 없이 시진핑이 이러한 권력을 강화하는 행동을 했다면, 중국의 정치 사회 내부에서 이에 반발하는 권력투쟁이나 파벌 정치 강화 등 여러 가지 현상이 출현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증거로는 그런 현상이 없고, 오히려 시진핑의 권력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이는 반대로 시진핑의 권력 강화가 엘리트와 사회의 지지 없이 할 수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중국 엘리트와 사회의 응집력 지표로 볼 수 있다.

미중 전략기술 경쟁 시기는 중국이 직면한 위협이 비교적 크고 반대로 이러한 경쟁에서 승리한다면 세계 패권을 장악할 큰 기회를 얻는다. 하지만 미국의 제재와 중국의 맞대응 사이에서 위협과 기회의 특성, 최적 정책 선택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지 않아 국제 시스템은 불확실하다.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미국의 견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사회와 이해집단의 이익과 국내제도가 적극적으로 반영된다기보다 시진핑의 리더 이미지와 전략적 문화를 통해 과다균형이라는 외교정책 결정, 그리고 경제안보 정책이 집행된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견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 관련 사회와 엘리트의 응집력 강화는 사회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기보다 시진핑 최고지도자가 민족주의와 대중주의 기반의 선전을 활용해 이러한 응집력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sup>5</sup>

### III. 중국의 대응 사례: 과다균형과 경제안보

#### 1. 총체적 안보관과 경제안보 정책 강화

중국 지도부의 핵심이익 인식 속에서 전략적 문화는 시진핑의 ‘총체적 국가안보관(总体国家安全观)’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인민안전의 중지, 정치안보의 근본, 경제안보의 기초, 군사·문화·사회 안보의 보장, 국제안보 촉진의 바탕으로 중국 특색의 국가안보의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시진핑이 제시한 총체적 국가안보관 내용의 핵심이다. 이러한 총체적 안보관은 2017년 10월 19차 당 대회에서 신시대 중국 특색사회주의 견지와 발전의 기본 방략에 포함되었다. 2020년 10월 19기 5중 전회에서 “발전과 안전의 통합”을 14차 5개년 계획 시기 경제사회발전의 지도 사상으로 삼았다. 2020년 12월 중공 중앙정치국의 26차 집단학

<sup>5</sup> 특히 중국 최고지도자의 대미 외교 관련 강경한 발언과 관련된 선동 선전이 국민들에 미치는 영향은 독재 국가의 선전이 국민들의 시위 가능성을 낮춘다는 좀 더 일반화된 연구(Carter, Eband Carter, 2021)와 중국 사례연구(Carter and Carter, 2022)를 참고. 즉 시진핑의 대미 관련 강경 발언이 사회와 엘리트를 직접 동원하는 효과를 증명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러한 선전이 국민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나 시위 가능성을 낮춤으로써 응집력을 다소 강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

습에서 시진핑 총서기는 총체적 안보관에 있어 ‘10가지의 견지’를 밝혔다. 그중에서 네 번째가 ‘발전과 안전의 통합’ 견지였다. 2021년 11월 19기 6중 전회에서 통과시킨 <당의 백 년 분투 중대한 업적과 역사 경험에 대한 결의(中共中央关于党的百年奋斗重大成就和历史经验的决议)>에서도 국가안보 유지를 18차 당 대회 이후 13개 방면의 중대한 업적 가운데 하나로 선정했고, 발전과 안전의 통합을 ‘다섯 가지 통합’ 가운데 하나로 간주했다(袁鹏, 2022/4/15).

국가안보 관련 법률과 정책 제정이 시진핑 시대 급증했고, 국가안보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반외세적 레토릭의 만연과 지나친 경제상태 및 외국에 대한 과잉반응을 초래했다(Drinhausen and Legarda, 2022/9/15: 12). 이는 중국 외교가 경제적인 과소균형(underbalancing)에서 과다균형(overbalancing)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다. 이러한 과다균형으로써 경제안보를 강조하는 방식인 발전과 안보의 통합은 실제로는 발전보다 안보를 더 우선 하는 것이다(Drinhausen and Legarda, 2022/9/15: 14). 즉 중국의 당국 체제는 국정의 우선순위를 GDP 성장과 물질적 조건에서 공산당 집권을 훼손하는 요인들을 없애는 안보에 대한 집중으로 전환한 것이다(Blanchette, 2022/9/1: 3).

이처럼 총체적 국가안보관의 기초로서 경제안보(안전)는 발전과 안보의 양호한 관계와 둘 사이의 통합을 추진함으로써 중국 지도부의 중요한 대전략으로써 자리매김했다. 특히 이러한 국가안보는 신발전 체제(쌍순환, 双循环) 속에서 사고할 필요성이 중국 지도부에 의해 제기되었다.

중국 경제의 현 상황은 높은 발전 수준에 이미 도달해 다른 경제와 상호 보완성보다는 경쟁이 심해졌다. 시진핑 주석에 의하면 중국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여 중국은 국내 대순환을 주체로 하고 국내와 국제 쌍순환을 상호 촉진하는 신발전 체제를 구축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18차 당 대회 이후 중국이 내수 확대 전략을 시행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내수 대순환을 주체로 한다고 해서 개방에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수 잠재력 발휘를 통해 국내 시장과 국제 시장을 더욱 잘 연결하고, 국내 대순환으로 전 세계 자원 요소를 끌어들이며, 국내와 국제 두 개의 시장과 두 가지 자원을 더 잘 이용한다. 이로써 전 세계 자원 배치 능력을 높인다. 특히 이러한 신발전 체제 구축을 위해 ‘과학기술 자립 자강’을 가속함으로써 결정적 핵심기술 획득이라는 가장 힘든

임무를 완수하고, 공급망에서 중요한 영역의 초크포인트 기술에 대한 공약을 가속화한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산업 사슬과 공급사슬의 최적화 업그레이드이다. 산업 사슬의 탄력성과 경쟁력 강화를 우선순위로 고려하고, 스스로 통제 가능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효율이 높은 산업 사슬 공급망 구축을 주도한다(习近平, 2022/8/31).

결국 중국 지도부의 신발전 체제 이념은 이러한 쌍순환을 토대로 과학기술과 공급망 안정 및 회복 탄력성 강화를 중요한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발전과 안전의 통합과 경제안보 기초로써 총체적 안보관은 신발전 구도 속에서 고려되고, 신발전 체제 구축을 위한 핵심 전략이 바로 과학기술의 자립 자강과 공급망의 안정 및 회복 탄력성 강화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안보는 총체적 안보관과 신발전 구도 속에서 고려되는 국가 대전략의 핵심 정책이다.

특히 중국 지도부가 이러한 신발전 구도를 중시한다는 증거는 2022년 9월 8일 중공 중앙판공청에서 발표한 <영도간부 능상능하(발탁 및 강등) 추진 규정(推进领导干部能上能下规定)>에서 새로운 발전단계와 발전이념에 대한 이해와 관철이 부족한 경우 등 정치적 성과에 편차를 보이는 경우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공산당 간부의 직무조정을 시행한다고 밝힌 데서 알 수 있다(人民日报, 2022/9/20). 이는 신발전 구도가 중앙 지도부의 이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 정부 관료의 구체적인 정책 집행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하는 당 중앙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의 추진은 국내 정치에서 최고지도자의 전략적 문화와 인식이 중앙-지방 관계의 국내제도를 통해 엘리트 응집력 강화와 연결되는 중요한 연결고리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경제안보는 과학기술안보와 사이버안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sup>6</sup> 특히 사이버안보에서 자주 혁신 강화는 국가발전이의 수호의 기초다. 미국과 서방의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 수출 제한 조치는 중국 첨단기술 산업과 발전이익에 손실을 초래했고, 시장과 자본으로도 핵심기술은 구매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자신의 연구개발과 발전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핵심적인 기술 분야

<sup>6</sup> 경제안보는 덩샤오핑 시기에 처음 제기되었고, 기술 및 정보 안보는 장쩌민 시기에, 사이버안보는 시진핑 시기에 각각 처음 등장한 것이다.

는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이었고, 이러한 분야에서 국가발전 이익을 수호함으로써 사이버 강국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王凤翔, 2018/4/23).

중국의 경제안보 정책의 역사적 변화는 우선 후진타오 정부 시기 평화발전<sup>7</sup>의 대전략 속에서 2002년 해외 진출 전략(走出去)이 포함된 ‘경제외교’라는 개념이 등장하여 2000년대 중반 외교부 공식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중국 경제성장의 가속화에 힘입어 국제정치경제 영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중국 지도부의 전략적 의도가 경제외교의 하위 범주로서 경제안보 정책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었다(정현욱, 2018: 345).

하지만 시진핑이 후진타오 정부와 다른 점은 경제안보를 국가안보의 중요한 기초로 상정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안보가 국가안보 개념으로 들어가면서 중국의 행정부인 리커창 총리가 이끄는 국무원 대신 시진핑 총서기가 이끄는 공산당 중앙이 경제안보를 장악하는 주체가 되었다. 특히 <국가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国家安全法)>의 제정과 함께 ‘중앙국가안전위원회(中央国家安全委员会)’가 설립되어 당 중앙의 기관인 위원회가 경제안보의 구체적인 의제 설정을 주도했다. 위원회가 다루는 경제안보의 영역은 산업안보, 과학기술안보, 정보네트워크 안보, 식량 안보, 에너지 안보, 초크포인트 기술 안보 등 광범위한 분야로 확대되었다(朱巧玲 外, 2022: 74-88).

그리고 외교 전략 차원에서 시진핑의 새로운 국제 경제 전략 배경에 AIB의 창설과 일대일로와 같은 정책이 있었고, 이러한 중국의 전략적 접근에 대한 미국 연구소와 안보 전문가들 사이 위협 인식이 공유되었다. 즉 미국과 서방은 중국에 대해 오랜 기간의 경제적 관여를 해 왔지만, 중국의 장기 전략으로써 중상주의 특징에 대해 오해해 왔다. 따라서 미국과 서방은 중국의 이러한 경제발전과 공세적 외교를 오히려 촉진했다. 하지만 시진핑의 새로운 전략이 기존 평화발전 전략을 완전히 폐기했다기보다 이를 확대·심화시켰다는 평가다(Ferchen, 2016/3/8).

<sup>7</sup> 후진타오 시기 제기된 평화발전의 틀은 중국의 국가발전 모델인 국가자본주의가 서방의 자유 경제 정치 제도와 충돌하는 것으로 인식되자 이러한 우려를 안심시키기 위해 고전적인 경제 자유주의적 논리를 가지고 온 것이다. 즉 중국 자체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은 국제 경제 정치 상호의존의 호혜성이 필요하고 이러한 호혜성에 기여한다는 것이다(Ferchen, 2016).

특히 중국 경제안보 정책의 특징 중 주목해야 할 점은 중국이 아직 미국의 강력한 제재 수단인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FDPR: Foreign Direct Product Rules)을 도입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sup>8</sup> FDPR은 미국이 중국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차단한 강력한 제재로서 한국의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가 이 제재의 적용을 받아 화웨이에 대한 최신 반도체 공급을 중단하였다. 이로 인해 화웨이는 매출이 급감해 기업 발전에 치명상을 입었다. 2022년 10월 초 미국 바이든 정부가 이러한 FDPR 제재를 중국 반도체 산업 전반 혹은 AI와 슈퍼컴퓨터 등 반도체에 대한 핵심 분야에 대한 강도 높은(Small Yard, High Fence) 제재 전략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경우 주로 선진국의 첨단기술이나 중간재 부품을 수입한 후 완제품을 조립하여 수출하는 경우가 많아 중국 자체 핵심 원천 기술 보유량이 미국에 비해 훨씬 적기 때문에 FDPR을 도입해도 실효성이 낮다. 그리고 FDPR을 미국이나 다른 국가에 사용하기 위해서 제재 당사국뿐만 아니라 미국처럼 제3국에까지 수출 통제를 강요할 수 있어야 하는데, 미국과 달리 동맹과 같은 긴밀한 안보 제휴가 없고 내정 불간섭을 주장하는 중국이 FDPR을 사용할 명분과 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처럼 FDPR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에 대한 제재에 착수하는 것만으로는 최적의 정책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중국의 맞대응 정책은 과다균형으로 볼 수 있다. 즉 중국도 미국처럼 FDPR을 적용할 수 있을 만큼 제3국에 안보와 경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에 대한 제재는 그 효과 자체가 낮아 중국의 정책이 과다균형이라는 것이다.

만약 중국의 첨단제품 속 원천 기술을 미국과 견줄 정도로 많이 보유하고, 동맹과 같은 안보적 제휴가 아니더라도 중국의 이러한 원천 기술을 제3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것을 제재할 수 있는 유효한 능력과 수단이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지금처럼 제재에 착수한다면 이는 과다균형이 아닐 것이다. 즉 중국의 균형 행

<sup>8</sup> FDPR은 다른 국가에서 생산한 제품이라도 자국 소프트웨어 혹은 원천 기술이 포함되었을 경우 제3국의 수출을 통제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보통 이러한 제품을 수출하는 제3국의 경우 자국 부처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위가 과소균형과 과다균형이라는 양 극단을 피하는 적절한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중국이 FDPR을 적용할 수 있을 만큼 과학기술 수준과 자국의 정책을 제3국에 강제할 수 있는 외교력을 갖추기 전까지 미국에 대한 맞대응(반제정책)을 최대한 피하면서 타협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

이처럼 중국의 경제안보 정책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평가는 논쟁적이다. 주로 서방 학자들의 경우 경제력이 정치와 외교 영향력으로 전환되기 힘들다는 점을 강조한다(Evelyn, 2016; Michael, 2016: 24-51). 반면 중국 학자들의 경우 이러한 반제 조치가 즉각적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효과적이라고 평가한다(方炯升, 2020: 65-87; 黄杰, 2016/11/25).

실제 미중 양국이 사용하는 이러한 수단의 효과는 차이가 난다. 미국은 화웨이, SMIC 등 중국 기업에 핵심적인 장비와 소프트웨어 등을 공급하고 있지만, 중국은 미국의 기술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초크포인트(choke point) 기술을 미국만큼 가지고 있지 않다. 오히려 중국은 희토류와 같은 원자재를 무기화할 수 있지만,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는 현재 대중 희토류 의존도 축소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대중 제재 효과가 중국의 대미 제재 효과보다 상대적으로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sup>9</sup>

결과적으로 중국의 진화하는 경제안보 조치는 결국 중국 시진핑의 전략적 문화에 의한 정책 선택이고, 다음 절에서 설명하는 소비보이코트 같은 대중의 자발적인 지지를 통해 과다균형(overbalancing)으로 대응했다. 이로 인해 미중 전략 경쟁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 2. 경제안보 정책에 대한 대중의 지지

중국의 경제압박 수단으로 외교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경제안보의 역사는 오래되었다. 그중에서 압박 대상에 따라 우선 대만에 대해 중국은 2000년,

<sup>9</sup> 하지만 미국의 전방위적인 대중 제재 역시 미국이 치러야 할 비용과 대가를 수반한다. 즉 중국산 원료와 부품을 사용하는 미국 기업에 비용 증가와 경쟁력 저하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바이든 정부는 최근 경제안보 전략을 “핵심 분야로 좁히고, 강도는 높이는(small yard, high fence)” 전략으로 선회했다(이승주, 2022).

2004년, 2016년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민진당 후보의 총통 당선 이후 대만의 독립 움직임을 잠재우기 위해 대만산 농수산물에 대한 제재(수입제한), 단체 관광객에 대한 제한, 중국 내 대만계 투자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등 조치를 강화했다. 중국의 경제 책략을 설명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전략적 동기에 따라 국가 주도로 정치적 이익 실현을 위해 경제 책략이 단기적으로 활용된다는 점이다(정현욱, 2018: 330-335).

특히 대만 문제가 미중 전략경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이유는 대만에 대한 미국과 같은 외세 개입에 대해 중국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군사적으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대응까지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항의하는 의미로 중국은 대만의 '대만민주기금회'와 '국제협력발전기금회'를 '완고한 대만 독립 분자 관련 기구'로 규정해 이들 기금회와 중국의 조직·기업·개인 간 협력을 금지하는 제재를 발표했고, 중국 상무부는 이날부터 대만에 대한 건축자재용, 철강재 제조 과정 등에 사용되는 천연 모래 수출을 중단했으며,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는 2022년 8월 1일 음료수 생산 기업 웨이취안(味全)과 과자류 생산 기업 귀위안이(郭元益) 등 100여 개 대만 기업의 식품에 대해 수입 금지, 8월 3일에는 대만산 감귤류 과일, 냉장 갈치, 냉동 전갱이의 수입중단을 발표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 외교부는 2022년 8월 5일 성명에서 미중 사이 전구 사령관 대화, 국방정책조정 대화, 군사 해양안보협력 회의, 불법 이민자 송환 협력, 형사사법 지원 협력, 초국가적 범죄 퇴치 협력, 마약 통제 협력, 기후변화 협상 등 8가지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즉 중국은 미중 갈등 중 대만의 핵심이익 문제가 연루될 경우 미국을 직접 제재하기보다 대만에 대한 경제 강압 조치를 통해 간접적으로 대만의 미국 정책 변화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략을 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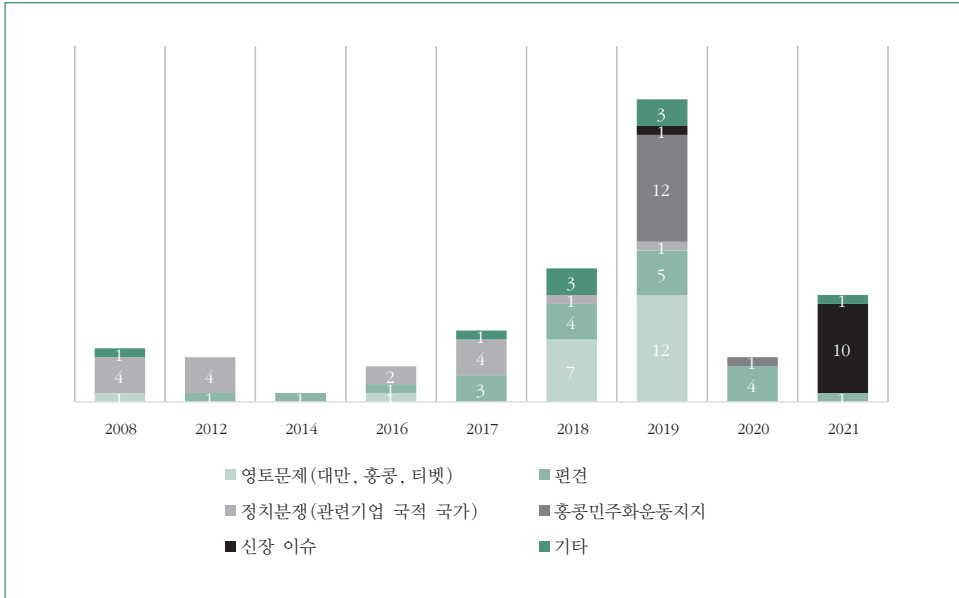
미중 전략경쟁 시대 중국의 이러한 경제 책략이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중국의 당-국가 체제가 국가자본주의 혹은 당-국가자본주의기 때문이다(Naughton·Boland, 2023; Pearson et al., 2021; Blanchette, 2022; Naughton·Tsai, 2015). 즉 국가자본주의는 기업들의 경제 활동 배경에 국가 혹은 공산당의 강한 개입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국이 해외에서 하는 이익 추구 활동 혹은 경제 강압 행위에는 반드시 당-국가의 정치적 목적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외교적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용한 자원을 동원하는 것은 그만큼 중국의 경제적 능력이 이러한 목적을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강해졌다는 의미다.

중국의 경제안보 정책 가운데 경제 책략의 경제적 영향력 측면에서 중국의 대응을 살펴볼 수 있다. 중국은 외교정책 목표달성, 국가 경제 강화, 해외에서 상업적 기회 지원을 위해 경제 책략을 사용하고, 특히 협상력 자원으로서 경제 관계를 활용한다. 중국의 대응은 구체적으로 강압적인 경제 책략, 긍정적인 우대조치, 상대국 국내 정치 개입 후 중국을 지지하는 기득권 세력 형성이다 (Scott·Margaret, 2021: 18-44). 이 중에서 미중 관계에서 최근 시진핑 시기 중국의 대응은 주로 강압적인 경제 책략을 활용한다.

한국과 연관된 사드 보복에서도 중국은 시진핑 주석과 외교부 등에서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와 같은 정치 외교적 압박을 가했고, 유럽국가들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경제적 타격이 큰 방식을 선택했다. 예를 들어 사드 사태가 터진 후 2016년 7월부터 2017년 1월 약 7개월간 사회·문화(23건), 경제(15건), 정치 군사 외교(5건)의 보복성 조처를 했고, 그중 대표적인 것이 한류에 대한 제재인 한한령이었다(연합뉴스, 17/2/3). 중국의 대한민국 사드 보복은 한중 갈등으로만 보기 어렵고, 사드 배치가 한국의 북핵 대응 수요를 초과하는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전략의 일환이라는 시진핑 주석의 인식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미중 전략경쟁에서 대만 문제와 같은 핵심이익 이슈가 개입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사드 배치는 중국의 안보 핵심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로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가 아닌 한국에 대한 제재를 통해 한국의 미국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는 중국의 대응이다.

중국의 경제안보 정책의 경제 책략에서 시진핑이 민족주의와 대중주의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구체적인 사례는 귀차오(国潮, 소비애국주의) 운동이다. 중국은 각종 세제 혜택, 차별적 보조금, 산업정책 등을 통해 자국기업을 육성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소비보이코트’와 ‘바이코트’가 다국적 기업의 중국 시장점유율을 감소시키고, 중국업체 점유율을 증가시키고 있다. 스웨덴국립중국센터의 분석에 의하면 중국의 외국 기업 불매운동 횟수는 2016년 4건에서 2019년 34건으로 급증했고, 특히 2016~2021년 불매운동 대상 기업의 국적 중 미국이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이 일본 11건, 프랑스 11건, 독일 8건, 한국 6건, 이탈리아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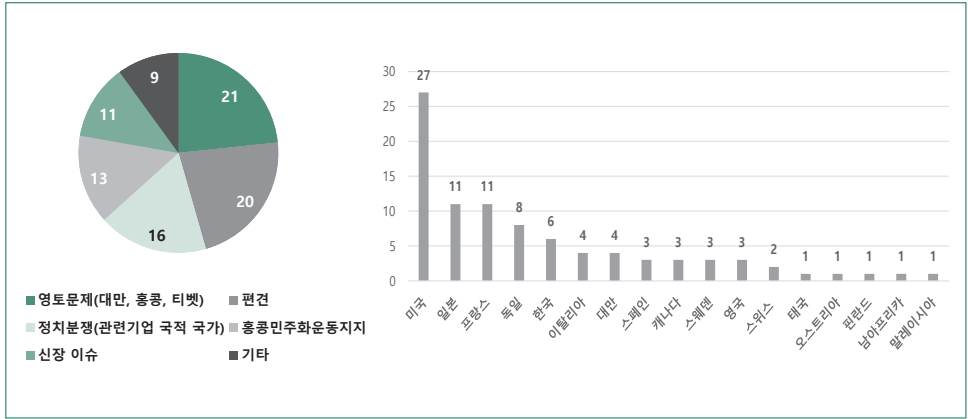
출처: Bohman·Parup(2022).

그림 2 2008~2021년 연도별 중국의 소비 보이콧 도화선(단위: 건수)

건, 대만 4건 등이다(Bohman and Parup, 2022). 미국 국적 기업이 27건으로 가장 많은 것에서 보듯이 이러한 소비 보이콧도 미중 무역 전쟁과 전략기술 경쟁과 연관이 있다.

특히 중국의 소비 보이콧은 대부분 정치적 문제에서 촉발한 것이었다. 2008~2021년까지 중국에서 일어난 소비 보이콧 운동 중 가장 큰 비중인 약 21건이 대만, 홍콩, 티베트와 같은 영토 문제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약 16건이 기업 국적 국가와의 정치 분쟁, 13건이 홍콩 민주화 운동 지지 문제, 11건의 신장 이슈 등이었다. 이는 대부분 중국 정부가 주장하는 중국의 국가 핵심이익 수호와 관련이 있었고(이재영, 2022), 중국 소비자들이 중국 정부의 핵심이익 관련 외교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소비 보이콧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소비자들은 단순히 자신의 취향과 선호에 따라 소비를 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선전에 따라 동원된 애국적인 소비자들이다. ‘애국적 소비자



출처: Bohman·Parup(2022).

**그림 3** | 2008~2021년 중국의 소비 보이콧 도화선(왼쪽 그림)과 소비보이콧 대상 기업의 국적(오른쪽 그림)

동원(patriotic consumer mobilization)’의 특징은 국가 선전 매체가 민족주의적인 반응을 만들어 내면서, 외국에 의한 굴욕과 착취의 주제를 강조하고, 애국주의의 상징식 실증이 활용되며, 소비 동원에 대한 비판은 배신으로 간주된다. 마지막으로 소비 동원은 결연한 의지를 나타내고 외국을 억제하는 외교정책 목표와 명시적으로 연결된다(Wong et al., 2023: 20). 즉 이러한 소비 동원은 국가의 하향식 동원이자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상징식 참여다.

구체적인 사례로 미중 무역 전쟁 초기인 2018년 6월 27일부터 7월 10일까지 중국의 300개 도시에 거주하는 2,000명의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진행되면 미국의 상품 구매를 거부할 준비가 되었느냐”는 질문에 객관식 대답을 제시했다. 우선 2천 명 응답자 가운데 54%가 미국 상표 상품 구매를 “아마도” 혹은 “확실히” 중단할 것이라고 밝힌 반면, 13%만이 미국 상품을 보이콧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다(*Financial Times* 2018/7/18).

따라서 중국의 소비보이콧 운동은 중국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시진핑과 중국 당국이 선전 선동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Zaagman 2019/8/15). 즉 시진핑 집권기 이러한 운

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시진핑의 민족주의와 대중주의에 기반한 선전이 이러한 귀차오 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총체적 안보관의 전략적 문화와 시진핑의 인식이 중국 경제안보 정책의 이러한 경제 책략을 유발했을 뿐만 아니라, 시진핑의 민족주의와 대중주의에 호소하는 리더 이미지가 소비 보이코트 운동을 중심으로 중국 소비자들과 사회 엘리트의 응집력을 결속시켰다.

#### IV. 결론

중국의 경제안보 정책은 자칭 ‘반제정책’이다. 이는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통해 타국을 압박한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는 것을 막고, 미국과 서방의 중국에 대한 제재의 부당함을 드러내려는 의도의 국가 대전략 담론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이 실제 경제안보 정책을 시행하는 경험을 분석해 보면 단순히 반제적 성격이 아닌, 중국의 핵심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주도한 국가에 대한 처벌적 성격이거나, 앞으로 중국의 핵심이익을 존중하도록 강제하려는 예방적 성격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중국의 핵심이익에서 가장 중요한 대만 문제다.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민진당 정권이 들어서거나, 미국이 대만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려고 할 때, 중국은 특히 이러한 경제안보 수단에 의존하였다. 중국의 사드 보복 역시 사드 배치가 한국의 안보 수요를 초과하는 것으로 미국의 대중 봉쇄 정책에 사드가 이용되어 중국의 핵심 안보이익을 훼손할 거라는 중국 최고지도자의 인식에 근거한 과다균형 대응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특히 시진핑 시대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와 관련된 법률과 정책 제정이 급증하면서 시진핑 정부는 총체적 안보관 등을 통해 국가안보의 전략 문화를 최우선시했다. 이는 대외적으로 미국에 대한 반외세적 레토릭이 난무하고 지나친 경제상태 및 외국에 대한 과잉반응을 유발했다. 신고전현실주의 이론에 따르면 중국 외교가 과소균형(underbalancing)에서 과다균형(overbalancing)으로 가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다. 이러한 과다균형으로써 경제안보를 강조하는 시진핑의 ‘발전과 안보의 통합’ 정책은 실제로는 발전보다 안보를 더 우선 하는 것이다.

시진핑 시대 이러한 과다균형이 중국의 대응을 주도하게 된 이유는 바로 시진핑의 일인 지배와 인사 통제강화와 같은 리더 이미지 때문이다. 특히 2022년 20차 당 대회를 계기로 시진핑은 중국의 최고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에 경쟁 파벌인 공청단과 상하이방을 완전히 배제하고 자신의 최측근(시자권, 习家军)으로만 지도부를 구성했다. 20차 당 대회의 인선 결과는 중국의 엘리트 정치가 더 이상 파벌 간 세력 균형과 시진핑 최고지도자의 정책에 대한 다른 파벌의 견제와 비판이 존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파벌 정치의 약화는 중국 정치 엘리트의 응집력 강화와도 관련이 깊고, 특히 시진핑 주석의 핵심 정책인 경제안보를 둘러싼 반대 의견이나 엘리트의 파편화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진핑 시기 급증한 소비보이콧 역시 중국의 핵심이익 수호라는 정치 외교적 목적 달성을 위해 민족주의와 대중주의에 호소하는 시진핑의 리더 이미지와 당의 선전 선동이 사회의 응집력을 결속시킨 결과물이다.

20차 당 대회가 끝난 직후 중국공산당 당장(党章) 개정안에 시진핑 주석의 당 핵심 지위 수호와 당 중앙의 권위 및 영도 수호를 의미하는 ‘두 개의 수호(两个维护)’가 새롭게 삽입된 것은 중국 정치 엘리트 응집력 결속의 결과물이다. 특히 공산당 중앙의 핵심 정책인 경제안보 정책을 지방에까지 확실히 집행하기 위해 시진핑 정부는 “영도 간부 발탁 및 강등 추진 규정”에 경제안보 관련 지방 관료 인사 평가 제도 안착을 시도함으로써 지방 정치 엘리트의 응집력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총체적 국가안보의 전략 문화와 시진핑 리더의 일인 지배 이미지·인식으로 형성된 과다균형과 경제안보 정책이 중국 통치 엘리트들과 사회 구성원들의 전적으로 자발적인 선택과 지지가 아닌, ‘두려움의 정치’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손인주, 2020), 권력 공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이상 상존하는 체제 불안감 때문에 시진핑 신시대 외교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손인주, 2020: 155).

결론적으로 시진핑 리더십하에서 중국의 진화하는 경제안보 정책은 결국 중국 시진핑의 전략적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에 대한 내부의 반대 의견과 엘리트의 파편화 대신, 20차 당 대회 이후 중앙과 지방의 정치 엘리트들 중심으로 응집력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소비보이콧을 통해 사회(소비자)가 동원되면서

미국에 대한 과다균형(overbalancing)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미중 전략경쟁도 더욱 장기화되고 구조화되고 있다.

투고일: 2023년 10월 16일 | 심사일: 2024년 2월 15일 | 게재확정일: 2024년 3월 28일

## 참고문헌

- 김상배. 2022. 『미중 디지털패권경쟁: 기술·안보·권력의 복합지정학』, 파주: 한울아카데미.
- 손인주. 2020. “두려움의 정치: 시진핑 권력 강화의 심리적 동인.” 『한국정치학회보』 54(1): 137-160.
- 이승주. 2021. “세계 경제의 네트워크화와 미중 전략 경쟁: 복합 지정학의 부상.” 『정치·정보연구』 24(3): 51-80.
- \_\_\_\_\_. 2022. “미국의 경제안보 전략: 평가와 전망.”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브리프』(10월 4일), 2(39), <https://snuac.snu.ac.kr/?p=38028>(검색일: 2023. 9. 4.).
- 이재영. 2020. “미·중 4차 산업혁명 전략적 기술경쟁: 자유 시장경제와 국가자본주의 모델의 충돌.” 『국제정치논총』 60(4): 213-256.
- \_\_\_\_\_. 2022. “중국의 국가핵심이익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사례연구: 중국의 대전략, 협소한 이익, 회색지대.” 『한국정치연구』 31(3): 353-383.
- \_\_\_\_\_. 2023. “중국공산당 제20차 당대회를 통해 본 시진핑 집권 3기 대내 정책 위험 요인 분석: ‘피크차이나(Peak China)’ 논쟁을 중심으로.” 『국가안보와 전략』 23(1): 69-118.
- 이재영·이용재·윤정현·정승호. 2023. 『미중 공급망 재편 경쟁과 중러북 경제관계 변화 대응 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 정현욱. 2018. “중국 경제책략의 정치경제적 분석과 사례연구.” 『중국학연구』 86: 329-360.
- 조영남. 2023. “중국 시진핑 시기의 정치변화 분석과 평가: ‘권력 집중형’ 권위주의의 등장.” 『국제·지역연구』 32(2): 41-69.
- 최진백. 2022. “미국의 중국 수정주의 국가론 검토: 중국의 GDI와 GSI 논의를 포함해서.”

- 『주요국제문제분석』 2022.52(2023): 1-28.
- 方炯升. 2020. “有限的回击: 2010年以来中国的经济制裁行为.” 『外交评论: 外交学院学报』, 37(1): 65-87.
- 环球时报. 2020. “美方挑衅 专家: 大部分中国人被激怒了.” 8월 11일, <https://world.huanqiu.com/article/3zQSZA7hYpf>(검색일: 2020. 8. 11.).
- 黄杰. 2016. “南开学者陈鹏权威解读“限韩令.”” 11월 25일. [https://www.sohu.com/a/119928624\\_505774](https://www.sohu.com/a/119928624_505774)(검색일: 2023. 8. 9.).
- 王凤翔. 2018. “加强网络自主创新维护国家发展利益.” 『求是网』(4월 23일), [http://www.china.com.cn/opinion/theory/2018-04/23/content\\_50952430.htm](http://www.china.com.cn/opinion/theory/2018-04/23/content_50952430.htm)(검색일: 2022. 9. 20.).
- 习近平. 2022. “新发展阶段贯彻新发展理念必然要求构建新发展格局.” 『求是』(8월 31일), [http://www.gov.cn/xinwen/2022-08/31/content\\_5707604.htm](http://www.gov.cn/xinwen/2022-08/31/content_5707604.htm)(검색일: 2022. 9. 20.).
- 国务院新闻办公室. 2019. “关于中美经贸磋商的中方立场.” 『新华社』(6월 2일), [https://www.gov.cn/zhengce/2019-06/02/content\\_5396858.htm](https://www.gov.cn/zhengce/2019-06/02/content_5396858.htm)(검색일: 2019. 6. 2.).
- 阎学通. 2021. “数字时代初期的中美竞争.” 『国际政治科学』 6(1): 24-55.
- 袁鹏. 2022. “深刻领会总体国家安全观的理论和实践伟力.” 『学习时报』(4월 15일), [https://theory.gmw.cn/2022-04/15/content\\_35661115.htm](https://theory.gmw.cn/2022-04/15/content_35661115.htm)(검색일: 2022. 9. 20.).
- 中共中央办公厅. 2022. “中办印发《推进领导干部能上能下规定》.” 『人民日报』(9월 20일), <http://www.http://dangjian.people.com.cn/n1/2022/0920/c117092-32529723.html>(검색일: 2022. 9. 20.).
- 朱巧玲·杨剑刚·侯晓东. 2022. “中国共产党经济安全思想的历史演进与启示.” 『财经科学』, 74-88.
- Allison, Graham. T. and Philip Zelikow. 1999. *Essence of Decision: Explaining the Cuban Missile Crisis*. Pearson.
- Blackwill, R. D. and J. M. Harris. 2016. *War by Other Means: Geoeconomics and Statecraft*. Harvard University Press.
- Blanchette, Jude. 2020. “From ‘China Inc.’ to ‘CCP Inc.’: A New Paradigm for Chinese State Capitalism.” *China Leadership Monitor* 66: 1-13.
- Bohman, Viking and Hillevi Parup. 2022. “Purchasing with the Party: Chinese Consumer Boycotts of Foreign Companies, 2008-2021.” *Swedish National*

- China Centre Report* (11 July), <https://kinacentrum.se/en/publications/chinese-consumer-boycotts-of-foreign-companies/>(검색일: 2023. 9. 4.)
- Byman, Daniel L. and Kenneth M. Pollack. 2001. "Let Us Now Praise Great Men: Bringing the Statesman Back in." *International Security* 25(4): 107-146.
- Carter, Erin Baggott and Brett L. Carter. 2021. "Propaganda and protest in Autocracie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65(5): 919-949.
- \_\_\_\_\_. 2022. "When Autocrats Threaten Citizens with Violence: Evidence from China."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2(2): 671-696.
- Christensen, Thomas J. 1996. *Useful Adversaries: Grand Strategy, Domestic Mobilization, and Sino-American Conflict, 1947-1958*. Princeton University Press.
- Drinhausen, Katja and Helena Legarda. 2022. "'Comprehensive National Security' Unleashed: How Xi's Approach Shapes China's Policies at home and Abroad." *Merics China Monitor* (September 15), [https://merics.org/sites/default/files/2022-09/Meric\\_China\\_Monitor\\_2075\\_National\\_Security\\_final.pdf](https://merics.org/sites/default/files/2022-09/Meric_China_Monitor_2075_National_Security_final.pdf)(검색일: 2022.9. 20.).
- Doshi, Rush. 2021. *The Long Game: China's Grand Strategy to Displace American Order*. Oxford University Press.
- Evelyn, Goh, ed. 2016. *Rising China's Influence in Developing Asia*. Oxford University Press.
- Ferchen, Matt. 2016. "How New and Crafty is China's 'New Economic Statecraft'?" *Foreigns Affairs* (MARCH 08), <https://carnegieendowment.org/2016/03/08/china-keeps-peace-pub-63009> (검색일: 2023. 9. 4.).
- Fewsmith, Joseph. 2021. *Rethinking Chinese Poli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riedberg, Aaron L. 1988. *The Weary Titan: Britain and the Experience of Relative Decline, 1895-1905*.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hiselli, Andrea. 2021. *Protecting China's Interests Overseas: Securitization and Foreign Policy*. Oxford University Press.
- Goldstein, Judith and Robert Owen Keohane, eds. 1993. *Ideas and Foreign Policy: Beliefs, Institutions, and Political Change*. Cornell University Press.
- Haass, Richard. 2022. "The Dangerous Decade: A Foreign Policy for a World in Crisis." *Foreigns Affairs* (September/October), <https://www.foreignaffairs.com>.

- com/united-states/dangerous-decade-foreign-policy-world-crisis-richard-haass (검색일: 2023. 9. 4.).
- Hall, Brands. 2014. *What Good is Grand Strategy?: Power and Purpose in American Statecraft from Harry S. Truman to George W. Bush*.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_\_\_\_\_. 2016. *Making the Unipolar Moment: U.S. Foreign Policy and the Rise of the Post-Cold War Order*.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Blanchette, Jude. 2022. "The Edge of an Abyss: Xi Jin ping's Overall National Security Outlook." *China Leadership Monitor* (September 1), <https://www.prcleader.org/blanchette-september-2022> (검색일: 2022. 9. 20.).
- Kier, Elizabeth. 2017. *Imagining War: French and British Military Doctrine between the Wars*.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unz, Barbara and Ilai Z. Saltzman. 2012. "External and Domestic Determinants of State Behaviour." Asle Toje and Barbara Kunz, eds. *Neoclassical Realism in European Politics: Bringing Power Back In*, 96-116.
- Kupchan, Charles A. 2010. *The Vulnerability of Empire*. Cornell University Press.
- Kynge, James. 2018. "Many Chinese Consumers Ready to Boycott US Goods in Trade War." *Financial Times* (July 18), <https://www.ft.com/content/18ced918-89c7-11e8-bf9e-8771d5404543> (검색일: 2024. 1. 30.).
- Lai, Hongyi. 2010. *The Domestic Sources of Chinas Foreign Policy: Regimes, Leadership, Priorities and Process*. Routledge.
- Legro, Jeffrey. 1995. *Cooperation Under Fire: Anglo-German Restraint during World War II*. Cornell University Press.
- Levy, Jack S., "Psychology and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In Leonie Huddy, David O. Sears, and Jack S. Levy, eds. *The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Psychology*, 2nd edn (2013; online edn, Oxford Academic, 16 Dec. 2013), <https://doi.org/10.1093/oxfordhb/9780199760107.013.0010> (검색일: 2024. 4. 3.).
- Mallett, Ellis and Thomas Juneau. 2023. "A Neoclassical Realist Theory of Overbalancing." *Global Studies Quarterly* 3(2): ksad023.
- Michael, Glosny. 2016. "Chinese Assessments of China's Influence in Developing Asia." *Rising China's Influence in Developing Asia*, 24-51. Oxford: Oxford

- University Press.
- Naughton, Barry and Kellee S. Tsai, eds. 2015. *State Capitalism, Institutional Adaptation, and the Chinese Mirac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aughton, Barry and Briana Boland. 2023. "CCP Inc.: The Reshaping of China's State Capitalist System." *CSIS REPORT* (January 31), <https://www.csis.org/analysis/ccp-inc-reshaping-chinas-state-capitalist-system> (검색일: 2023. 1. 31.).
- Pearson, Margaret, Meg Rithmire, and Kellee S. Tsai. 2021. "Party-state Capitalism in China." *Current History* 120(827): 207-213.
- Ripsman, Norrin M., Jeffrey W. Taliaferro, and Steven E. Lobell. 2016. *Neoclassical Realist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Oxford University Press.
- Schweller, Randall L. 2004. "Unanswered Threats: A Neoclassical Realist Theory of Underbalancing." *International Security* 29(2): 159-201.
- \_\_\_\_\_. 2006. *Unanswered Threats: Political Constraints on the Balance of Power*.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cott, L. Kastner and M. Pearson Margaret. 2021. "Exploring the Parameters of China's Economic Influence." *Studies in Comparative International Development* 56(1): 18-44.
- Shirk, Susan L. 2023. *Overreach: How China Derailed Its Peaceful Rise*. Oxford University Press.
- Shambaugh, David. 2021. *China's Leaders: From Mao to Now*. John Wiley & Sons.
- Thomas, Neil. 2023. "Xi Jinping's Three Balancing Acts." *China File* July 24, 2023, <https://www.chinafile.com/reporting-opinion/viewpoint/xi-jinpings-three-balancing-acts> (검색일: 2023. 10. 15.).
- Williams, Michael C. 1993. "Neo-realism and the Future of Strategy."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19(2): 103-121.
- Wong, Audrye, Leif-Eric Easley, and Hsin-wei Tang. 2023. "Mobilizing Patriotic Consumers: China's New Strategy of Economic Coercion."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46(6-7): 1287-1324.
- Zaagman, Elliott. 2019. "Balancing Act: China's Nationalist Consumer Boycotts." *The Interpreter* (5 August), <https://www.lowyinstitute.org/the-interpreter/balancing-act-china-s-nationalist-consumer-boycotts> (검색일: 2024. 1. 30.).

Zakaria, Fareed. 1999. *From Wealth to Power: The Unusual Origins of America's World Rol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차 자료〉

연합뉴스. 2017. “중, 한국에 ‘사드 보복’ 7개월간 43건.” 2월 3일,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203800092> (검색일: 2023. 9. 3.).

*Global Trade Alert* (2023), 2023.10.2. 업데이트, <https://www.globaltradealert.org/>(검색일: 2024. 1. 30.).

## Abstract

## Theory and Case Study on China's Response to US Pressures during the US-China Strategic Technology Competition: Overbalancing and Economic Security in Neoclassical Realism

Jaeyoung Le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The research question of this paper is what are the factors that cause China's response on overbalancing to US pressures during the US-China strategic technology competition? From the perspective of neoclassical realism theory,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China's Xi Jinping's perception of external threats and the strategic culture that interacts with it resulted in China's overbalancing response. As a strategic culture that interacts with Xi Jinping's perception, China's overall security view and economic security policy strengthens the cohesion of the political elite and society surrounding it rather than domestic opposition and fragmentation of the elite, leading to an overbalancing response to the United States. The reason why political elite and social cohesion increased during the Xi Jinping era is because Xi Jinping's one-man rule was strengthened, personnel control for economic and security policy implementation was institutionalized, and Xi Jinping effectively mobilized nationalism and populism through consumer boycotts. Overbalancing caused by China's strategic culture further intensifies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nd clearly shows that the neoclassical realist explanation for China's response to US pressures during the period of US-China strategic technology competition is appropriate.

**Keywords** |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US-China Technology Competition, Neoclassical Realism, Overbalancing, Economic Security, Reshaping Supply Chain

